

경북지역 맥종별 파종시기에 따른 월동 후 생육정도

배정숙^{1*}, 손창기¹, 허창석¹, 권태영¹

¹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47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작물육종과

[서론]

우리나라에서 맥류는 주로 이모작으로 재배되고 있어 기상변화에 따른 앞그루의 수확시기 변화와 강우량,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맥류 파종을 하게 된다. 또한 최근 맥류 재배기간중 기온상승으로 맥류의 안전재배지대 북상과 파종시기 및 한계기가 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은 5개도의 맥류재배 주산지역을 대상으로 맥종별(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파종시기에 따른 생육 및 수량연구를 통하여 표준재배법을 재설정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맥종별 시험품종은 큰알보리1호(겉보리), 흰찰쌀보리(쌀보리), 호품(맥주보리), 새금강(밀)을 공시하여 답리작으로 파종량은 10a당 16kg을 휴립광산파하였다. 각 맥종별로 파종기는 10월 상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순별로 파종기 7처리하여 월동 후 3월 하순에 생육조사를 실시하였다. 생육조사로는 초장 분얼수 경수 건물중 등을 조사하였고, 우수장은 실체현미경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맥류의 출현소요일수는 파종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10월 중·하순에 파종한 시험구에서는 10일 전후, 11월 초·중순에 파종한 시험구에서는 20일 전후, 11월 하순에 파종한 시험구에서는 60일, 12월 초순에 파종한 시험구에서는 50일 정도로 늦게 파종할수록 출현일수가 많이 걸렸다. 월동기 12월 상순부터 2월 하순까지 영하의 기온으로 인하여 보리(큰알보리1호, 흰찰쌀, 호품)는 고엽율이 80%이상으로 한해가 심했으나, 밀(새금강)은 고엽율이 20%이하로 추위에 강하여 한해가 적었다. 월동 후 3월 하순경의 생육을 조사한 결과, 초장과 분얼수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순에 파종한 시험구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파종한 시험구간에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경수와 생체중 건물중은 10월에 파종한 시험구가 11월 이후 파종한 시험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우수분화는 1월에 파종한 시험구는 X기 이상이었으며, 11월에 파종한 시험구는 VII기 전후였으며, 12월에 파종한 시험구는 큰알보리1호(겉보리)와 새금강(밀)은 III기, 흰찰쌀(쌀보리)은 IV기, 호품(맥주보리)은 VI기로 맥종간 우수분화 차이가 있었다.

[사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과제번호: PJ012547072018)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53-320-0287, E-mail. jsbae24@korea.kr